

[ 기획 ]

■ 한·중 FTA 체결된다면

농산물 수입 11兆 증가  
농업시장 붕괴 불 보듯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게 된다. 대외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중 FTA가 현실화돼 관세가 완전 철폐되었을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무려 116억 7천 200만달러(1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곡물류의 수입증가가 가장 크고, 기타 농산물, 가공식품, 채소과일류, 축산물, 임산물 순이다.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우리의 평균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국산 농산물 1조원이 수입될 경우 국내 농산물 생산액이 5조원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 농림업 총생산액이 약 36조원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넘는다.

중국이 대 한국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점으로는 가격경쟁력 이외에 우리와 유사한 농업 환경 및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의 양호에 따른 신선농산물 수출 우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수출정책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 낼 수 있어 금만큼 한국농업의 피해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력 있는 특산물 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업은 포기할 수도, 포기되어서도 안된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우리 모두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 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전부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끝>



글·사진 조창완  
<경제학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cwcho@gjdi.re.kr>

연재를 마치며

무섭게 진화하는 中 친환경농업 경계하라

특이한 생태조건과 막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품질향상을 통해 최근 급속하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농업은 한국농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명산업이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 중흥을 위한 인식 전환과 기술 고도화가 시급하다.



중국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인들은 1개월 정도 거주하면 어느 정도 중국 사회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한다. 3개월 거주하면 중국전문가, 1년 있으면 '중국통'을 자임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5년이상 살고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을 더 모르겠다고 한다. 장기거주자들은 "중국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경제 시스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농업투자 확대·구조조정 순조

그동안 본 시리즈를 통해 중국농업의 현주소를 들

여다보고 우리 농민 및 소비자들에게 현대 중국농업의 대강을 소개했다. 특히 농도인 전남은 중국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어 중국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한 향후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았다.

어떤 이는 중국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유통 시스템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농업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한·중 수교이후 수차례 중국 농업현장을 다니면서 중국 농민들의 애환과 서러움, 그리고 중국 농업관계자들의 자신감을 현장에서 지켜보아 왔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는 중국농업을 이제는 경이로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자원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도 있지만 생산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아직은 선진국이나 우리에게 비해 농업 생산이나 구조가 뒤져있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로 인해 이촌향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업에 대한 애정만큼은 매우 높다. 중국정부도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품화경영의 도입, 신농촌운동의 전개 등 중국농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지원과 유통, 수출까지 전담하는 '용두기업'(龍頭企業)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수출시장의 선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中 틈새시장을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농업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동안 피해만 받아왔다는 의식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우리도 세계 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농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에 대한 주체가 바로 농민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농민도 국민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의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공세적 입장에서 중국 소비자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전문 친환경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비록 미미하지만 일부 가공식품이 중국시장에서 호평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중국시장 공략 가능성은 있다. 선별과 포장 그리고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고소득층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권역별 특성이 다르고, 소득 수준이 차별화되어 있고,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품질과 브랜드화는 이를 위해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의 근간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 소비자들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도불기가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 상상할 수 있도록 의식 전환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국내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쇠퇴하게 된다.

고품질·브랜드화는 필수

이제는 우리 농업도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서 자생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Happy Time' and '영화안네'.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s for various movies like '미녀는 괴로워'.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s for '박물관이 살아있다!'.

주차장이 편한 극장 (Convenient Cinema) listings for '박물관이 살아있다!'.

올드미스다이아리 (Old Miss Diary) listings.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s for '중천'.

중천 (Jungcheon) movie poster and details.

경동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Keungdong Night Electric Heater Special Supply) advertisement with pricing and contact info.

명품 한우 전문점 (Premium Hanwoo Specialty Store) advertisement for '한우삼형제' (Hanwoo Samhyeongje) restaurant.